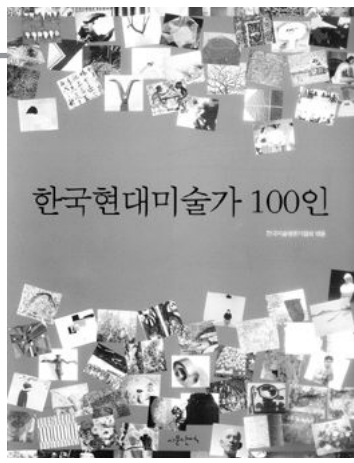


<故 허백련> <故 허건>



한국현대미술가 100인



<故 오지호> <故 김한기>

한국 현대미술 꽃피운 대가들



<故 임직순> <전경자>

“허백련, 이중섭, 박수근, 오지호, 김한기, 박서보, 임직순, 천경자, 우제길...”

한국미술평론가협회(회장 서성록·이하 평론가협회)가 최근 20세기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04인을 선정, 발표했다. 평론가협회는 이를 기념해 이들의 작가론을 수록한 ‘한국현대미술가 100인’(사진·사문난적 펴냄·5만원)도 함께 출간했다.

평론가 협회는 2년간의 작업 끝에 근대 미술의 선구자들과 1945년 이전 출생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미술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대표 작가 104명을 선정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허백련, 이상범, 노수현, 변관식, 이응노, 장우성, 김기창, 천경자, 김한기, 유영국, 이중섭, 박수근, 오지호(이상 회화) 화백과 백남준, 박현기(비디오 아티스트), 김종영, 권진규, 최정태, 전희진(이상 조각가) 등 20세기 한국화단에 한 획을 그은 작가들이 망라됐다.

그동안 ‘21세기 한국의 작가 21인’(2000년)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100명이 넘는 한국 현대미술 대표작가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작가 선정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광수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록 회장과 윤난지(이화여대 교수), 윤진섭(호남대 교수), 김현숙, 조은정씨 등 미술평론가 3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작가 리스트를 기초로 심층 토의와 복수 추천을 통해 104명을 골라냈다.

이 지역 출신 작가로는 허백련, 허건, 오지호, 김한기, 임직순, 천경자, 오승우, 우제길 화백 등 8명이 선정됐다.



<오승우> <우제길>

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 작가가 고작 8명에 그쳐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들 가운데 5명은 대부분 작고 작가이며 생존작가는 천경자, 오승우, 우제길 등 3명 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앙 화단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독특한 예술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창조적인 작업과 중앙 화단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성록 회장은 “호남 작가들의 경우 우수한 지역의 전통이 있는데도 이를 단순히 계승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이 많았다”면서 “예술 전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창조하는 등 작가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스템이 갖춰진 중앙 화단에 비해 지역 작가들의 활동이 덜 주목받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중앙과 세계 화단에 끊임없이 작품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평론가협회는 조만간 1945년 이후 출생 작가들을 대상으로 100여 명을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해 ‘한국현대미술가 100인’ 2편을 낼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허백련·김한기 등 104명 선정 평론가협 작가론 수록 책 펴내

예향 남도출신 작가 고작 8명 “중앙 화단에서의 활동 필요”

이들 선정위원은 허백련을 ‘한국 남종화의 맥을 고스란히 지닌 존재’로, 오지호를 ‘우리 민족의 밝고 아름다운 색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천경자는 ‘독자적 표현주의’로, 임직순은 ‘색채의 화가’로, 김한기는 ‘조형적이면서 문학적인 작가’로, 우제길은 ‘남도의 처연한 빛을 표현한 작가’로 평가했다.

하지만 예향 남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104

박노동교수 첫 시집 ‘검돌배개...’ 펴내

농업학자로 잘 알려진 박노동 교수(60·전남대 농업생명공학부·사진)가 최근 첫 시집 ‘검돌배개 고요함에’를 냈다.

박 교수는 질박한 언어로 고향을 노래한 시와 일상에 가려진 현실의 부조리를 날카로운 직관으로 포착한

‘구멍’ ‘패스파인더에 부치다’ ‘솔티 재 너머 사 마지기’ 등 70여 편의 시를 총 5부로 나눠 엮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사래시’동인으로 활동해온 박 교수는 시집에서 그동안의 공력에 걸맞게 깊이 있는 시상과 평소 갖고 있던 언어의 조형미



를 맘껏 펼쳐 보이고 있다. 김준태 시인은 발문에서 “그의 시의 대부분은 아날로그적 세계관을 조화롭게 유지한다. 모더니즘과 디지털시대의 지식인답게 과학적 상상력을 가

지고 노래한 장시도 좋지만 감동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역시 아날로그에 바탕을 둔 시편들이다”고 평하고 있다.

박 교수는 광양 출신으로 사래시동인지 ‘마침내 새가 되어’에 ‘돌감나무’의 5편을 발표하며 등단. 현재 사래시동인 회장을 맡고 있다.

(문학들·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클래식 음악과 발레 영상 감상회를 진행한다.

화요일엔 클래식 금요일엔 발레

30년 음악감상지기 ‘베토벤’ 내년 프로그램 확정

‘2010년엔 클래식 음악, 발레와 친 구하기’.

30여년 동안 한자리에서, 옛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옛 전남도청 앞 금양빌딩 6층)에서는 올 한해 매주 화요일 클래식 음악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프로그램이 계속됐다. 클래식 마니아인 안철씨가 DVD를 준비하고, 간단한 해설을 곁들여 진행한 음악회였다.

2010년에도 ‘화요 클래식 영상 음악감상회’는 계속된다. 여기에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진 발레 작품을 집중감상하는 ‘금요 발레 감상회’도 새롭게 시작한다. 해설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안철씨가 맡는다.

이미 1년 프로그램을 확정된 2010 클래식영상 음악감상회는 1월 5일 열리는 ‘빈 신년음악회의 폴카 모음’으로 시작한다. 프로그램은 각 작곡가의 탄생일에 맞춰 작곡가의 대표 음악을 감상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는 쇼팽(3월 1일)과 슈만(6월 8일), 탄생 150주년을 맞은 말러(7월 7일)의 음악을 집중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말러(7월 7일)의 교향곡 1번(클라우디오 아바도·베를린필), 5번, 쇼팽의 ‘야상곡’, ‘발라드’ ‘피아노협주곡 1번’ 슈만의 ‘교향곡 1번, 2번, 3번, 4번’과 ‘피아노협주곡’ 등을 감상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발레감

상회’에서는 50여편을 만날 수 있다. 발레가 음악과는 땀 수 없는 장르라 춤과 음악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1월 8일 열리는 ‘고집쟁이 딸’을 시작으로 ‘돈키호테’, ‘백조의 호수’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낭만 발레 뿐 아니라, ‘마농’, ‘오네긴’, ‘유쾌한 미망인’ 등 지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영상’으로나마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스파르타쿠스’, ‘로미오와 줄리엣’등을 감상할 수 있는 볼쇼이 발레 결자선(5월 14일~7월 2일)이 눈길을 끌며 피카소가 참여했던 발레작품은 ‘파란기차’ 등도 만날 수 있다. 티켓(5천원)을 구입하면 차를 제공한다. 문의 062-222-8410.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송순섭 판소리 한마당

31일 서울국립극장

송순섭 광주시립국극단장이 2009년 마지막 날 호쾌한 판소리 한판을 선보인다. 송단장은 오는 31일 오후 8시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 선다. 국립극장이 1년간 진행해온 ‘2009 완창 판소리’의 피날레 무대다.

송단장은 이번 무대에서 호방한 소리가 일품인 ‘박봉술재 수궁가’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엔 선보이는 ‘수궁가’는 송흥록-송우룡-송만갑-박봉술로 이어진 동편제 바다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인 송단장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았고, 한국 판소리계의 대부 동리 신재효 선생을 기리는 ‘동리 대상’도 수상 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최정희 ‘에너지’ 서울전

오늘부터 29일까지

인사아트센터서

서양화가 최정희씨가 23~29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최씨는 ‘상상의 에너지’를 주제로 흑백으로 표현된 다양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그들만 같은 무수한 점들을 흑백으로 나눠 비행기 등 사물의 윤곽을 드러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움직임 표현했다.

조선대 회화과와 동대학원 출신으로 광주·가고시마 미술교류전, 남도의식의 확산전, 현대작가 초대전 등에 출품했다. 현재 무등회, 한국미술협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수바다장어

100% 신선한 장어

장수바다장어는 맛, 영양,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 (동천동 1가) 장수바다장어

전화: 062-222-1100

민통무렵 이월이쓰림 전세/월세/매매/임대/수비비 70% 절감

민통무렵 일시비 50~70% 정부 무상지원 (정부보조금 100% 지급)

1. 100% 신축임대주택
2. 100% 신축임대주택(100% 정부지원) / 신축임대주택(100% 정부지원)
3. 100% 신축임대주택(100% 정부지원) / 신축임대주택(100% 정부지원)

문의: 062-222-1100